

게리 미더스 박사, 고린도전서, 25강, 고린도전서 11:2-34.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11:2-1 5, 1부

공적 예배에서의 남성과 여성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강의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강의 25, 고린도전서 11:2-34,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11:2-16, 하나님 앞에서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 1부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을 시작으로 두세 번의 세션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전서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장일 수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바울의 시대와 공간에서 의미하는 바에 대한 문구와 용어의 모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는 특히 미국에서 젠더 논쟁에 대한 주요 기관에서 이 장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인 데 기인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해결한 것만큼 해석에 많은 문제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남성과 여성, 특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트 패키지, 노트 패키지 번호 12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고린도전서 25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네요. 이 책을 다 읽으려면 30회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작업을 계속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언급한 주요 해설뿐만 아니라, 저널 기사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성한 책보다 더 적게 가졌을 겁니다. 그것은 알고자 하는 탐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충족시키는 것의 일부이며, 그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 그를 알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를 그 다른 측면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해왔던 것처럼, 저는 노트에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몇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좋은 가르침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좋은 학생이라면, 당신의 가장 큰 특징은 호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고 답을 찾을 때까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몇 가지 이슈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폭넓고 반복적으로 읽도록 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고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봅시다.

좋아요, 134페이지, 노트 팩 12. 로마 숫자 4는 7장 1절에서 당신이 쓴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 서면 공보에 대한 응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A 번호에서 바울이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응답은 7장에 있고, 바울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8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C, 11장에서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이제, 11장은 두 가지를 다룹니다. 공적 예배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루고, 이 장의 후반부에서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한 모임과 관련하여 교회를 다룹니다.

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인들에게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루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이 텍스트를 다루는 순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관련된 몇 가지 심오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문맥 자체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슈를 거의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통제하기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바로 이 초기 구절들, 성별에 대한 현재 복음주의 논쟁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세 가지 움직임으로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에서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를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몇 가지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후에 우리는 그 세부 사항을 돕기 위해 가져온 역사적 문화적 재구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부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사람들이 역사적 문화적 프레젠테이션에서 그것을 어떻게 상상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젠더 문제와 젠더 논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적이고 미국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정보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거나 스스로 표면화할 수 없는 경우 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문맥에서 본문을 기본적으로 읽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이 섹션, 11, 2에서 34는 공적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들이 모인 곳에 대한 좋은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후원자의 집에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주의 만찬과 초기 회중의 문제에서 볼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 11:2-16.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적인 맥락은 공적 예배입니다.

몇몇 글이 있었습니다. 이 장의 어려움 중 일부를 다루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장을 읽을 수 있는 특정한 렌즈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적인 것이지 공적인 것이 아니라는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의견은 우리가 공적 예배, 즉 모인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도 말입니다.

이 섹션의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저는 몇 가지 기여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이 텍스트들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중 일부를 강조하겠습니다. 이 연구 단계에서는 사실의 기본 레이아웃과 텍스트의 흐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용어는 우리가 그 측면에 도달할 때까지 보류될 것입니다. 우선, 적지 않은 명성을 가진 오순절 학자이자 평등주의자이기도 한 Fee는 그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고린도전서 11장의 해석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층주의자, 보완주의자, 평등주의자가 있습니다.

계층 적, 평등주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보완주의적이라는 용어를 중간에 두었을 겁니다. 나중에 그 용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계층 주의자들은 남성을 여성보다 우위에 두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지만, 다양한 창조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 구조적 설정에서 그는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1장 3절부터 16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1장 7절부터 12절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설명과 그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리고 서로 맺는 관계와 관련된 공적 예배의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11:13 에서 16까지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문단별로 보면 서양식 구성과 거의 같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있는 문단입니다. 문단으로 작업하고, Fee는 그의 책인 Exegetical Guide to the New Testament에서 문단을 약간 지지합니다. 그는 문단을 매우 강조하며, 문단은 구조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Fitzmeyer가 있습니다 . Fitzmeyer 는 흥미로운데, 로마 가톨릭 신자로서, 그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해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계층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항상 그런 문제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Fitzmeyer 는 제가 그를 해설가의 Joe Friday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십 년 전의 TV 시리즈에서 경찰이 나가서 사람들을 조사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었고, 조 프라이데이는 사실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사실, 오직 사실만을 원했습니다.

글쎄요, 피츠마이어 는 그런 식이에요. 그는 역사적 비판 학자이고, 신학화하거나 지나치게 해석적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항목들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피츠마이어의 관점은 더 작은 조각으로 나뉩니다.

11:3, 바울의 기본 신학적 원리인 프로그램적 진술이며, 우리는 그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기 위해 그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왜 2절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저는 2절을 읽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3절,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3절은 머리와 세 가지 구성 요소, 특히 이 텍스트에서 논란이 되는 두 가지, 즉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11:4-6에서 바울의 논제는 수사학적 방식으로 공개 기도와 예배에서 남자와 여자의 머리 사이의 차이를 제시합니다. 11:7-9에서 그의 설명적 주장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를 주장합니다.

이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단지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11.10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며, 3절에서 9절까지의 결론적인 진술로, 여자가 머리 위나 머리 위에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on 또는 over라는 단어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치사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 구절에는 또한 천사들 때문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1:11과 12는 바울이 주님 안에서 반론을 제시한 자격으로, 7, 실례합니다, 7~9절과 일치하며, 약간의 카이아즘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11:16은 교회 규율에 근거한 훈계로,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로, 어떤 면에서는 나머지 부분만큼이나 골치 아픈 구절입니다.

Fitzmeyer가 이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견해를 요약한 내용은 그의 해석적 구성과 어울린다. 그의 패러다임은 다섯 가지 주장, 즉 여성이 기도하거나 예언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로 표현된다. 그는 종교적 집회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용어를 종교적이라고 사용할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원하신다면 머리를 가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우선, 성경적으로 창세기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창조 순서는 여자가 남자의 동반자이자 도우미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남자의 영광으로서 그녀는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매우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성의 머리는 남성을 상징하며, 예배에서 그 머리를 가리는 것은 예배의 맥락에서 남성을 축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반면 남성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홍보하기 위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여기 이미지의 큰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신, 그리스도, 남자, 여자의 질서 있는 우두머리는 베일을 쓰라고 요구합니다. 피츠마이어 에 따르면, 여기에는 쪼아먹는 순서, 창조된 쪼아먹는 순서가 있습니다 . 사회학적으로, 자연 자체에 기반한 관습은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머리를 가리지 않은 것을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제, 그것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글썬요, 그녀가 처음에 그것을 왜 가렸을까요?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나 불명예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규율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할 때 여성의 머리를 가리지 않는 관습이 없습니다. 16절은 까다로운 구절이고,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에는 상상할 수 있듯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천사들과 그들이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훑어보면서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Garland는 Southern Baptist이지만 Southern Baptist 그룹의 진보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평등주의자입니다. 대부분의 Southern Baptist는 어떤 의미에서 계층적일 것이지만, 그는 평등주의자이고, Louisville의 Southern Baptist Seminary에서 가르치고, 그곳에서 옮겨졌고, Waco의 Baylor College에서 오랫동안 재직했습니다.

Garland의 섹션 요약은 항상 읽기에 유익하고, 저는 이전에도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Garland는 바울이 이 텍스트에서 성별 위계를 확립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문화적 감수성 내에서 여성을 공적 예배에 명령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지적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텍스트를 다루면서 이 관찰과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텍스트에 대해 깨끗이 접근해야 하며, 그것은 미국의 현재 문화적 배경과 아마도 여성의 사역에서의 역할에 관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여성이 남성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이런 위계적 관점의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제가 나중에 지적할 몇몇 그룹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역과 관련하여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한 논쟁을 너무 일찍 꺼내면, 당신은 당신이 더 순수한 방식으로, 아마도 바울이 다루고 있던 원래의 방식으로 본문을 살펴보기도 전에 본문을 당신의 범주에 강제로 집어넣는 렌즈를 가져오고, 당신은 당신의 신학을 너무 일찍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가르침은 창조적인 구성보다 앞서고, 적어도 그는 여기서 성별 위계를 확립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강력한 위계적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지만, 보완주의자와 평등주의자의 진보적 측면에 있는 보완주의자는 이것이 여성을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텍스트가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그들의 권위 또는 참여 권리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텍스트라고 매우 강조합니다. 갈랜드, 이번에는 텔버트 아니라, 텔버트가 아니라, 2에서 16까지의 텍스트 구조에 대한 카이아즘을 제시한 것은 갈랜드이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부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구절인 10절이 중간에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중심 주장은 이런 이유로 여성이 머리 위에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텍스트의 논리가 10절에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카이아스틱 구조의 강력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136쪽.

이 세 명의 주요 해석자, Fee, Fitzmeyer, Garland는 이 텍스트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흐름은 매우 간단합니다.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지, 큰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이 큰 부분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세부 사항을 본 후에는 세부 사항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 다입니다 . 이제 본문을 그 자체의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2 절에서 2절로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신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peri de*가 없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바울이 여기서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이 이에 대해 그에게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그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온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관찰입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대로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이제 , 그것을 살펴보죠. 이 섹션의 매우 흥미로운 시작 구절입니다. 번역된 전통과 전통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나쁜 단어가 아니며,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와 신약 모두에서 기술 용어로 사용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종교적 가르침을 구전으로 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파라 도세이스는 그리스어입니다.

전통은 종교적 가르침과 유대교 전통의 구전 전수였으며, 구약과 그 후 우리가 제2성전 유대교라고 부르는 것, 기원전 3세기경, 그 무렵, 아마도

조금 더 일찍 바빌론으로의 강제 이주, 성전 파괴, 그리고 그런 성격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제2성전 유대교라고 부르는 매우 방대한 문학적 보물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칠십인역은 그 중 일부였지만, 에클레시아스티쿠스가 있습니다.

벤 시라흐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이 있습니다. 정경이 아니지만 구약 중간 시대를 다루는 두 권의 거대한 유대 문학이 있습니다.

마카비서. RSV 성경에서 그들은 항상 외경의 일부를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1, 2 마카비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개의 마카비서, 1, 2, 3, 4가 있습니다. 3, 4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RSV에 포함된 이 제2 성전 유대 문학의 일부만 있는데, 정경이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한다면, 구약과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를 잇는 문학적 다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홀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린 시절에 유대교를 배우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바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가말리엘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과 함께 공부했을까요? 글썄요, 그것은 제2 성전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꽤 풍부했던 그들 자신의 글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신약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제2성전 유대교 문헌에서 나온 인용문이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것들은 권위 있는 방식으로 신약성경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신약에 나올 때만 진정한 권위를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역사적 기록의 문제일 뿐, 영감의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약에 나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확하다고 여깁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정한 전통을 유지하는 것의 우수성, 이 *paradoseis* . 이 전통, *paradoseis* , 명사인 것을 주목하세요. 바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전수한 것입니다.

동사가 있는데, 명사 패러디스트, 동사는 파레이돌리아이고, 이 단어들은 사도행전과 신약에서 권위 있는 정보의 권위 있는 전달로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한 코드워드가 됩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로 그런 방식으로 조금 후에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이 자료를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전수했습니다.

그는 전통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반-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인간적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든 정확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다양한 형태로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전통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전통 역사가 무엇이든, *paradoseis* 라는 용어 , 즉 전통은 남성에게 사용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종류의 전통이었던 콜로새 이단에 사용됩니다. 그것은 유대교에 사용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진정한 기독교 전통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각각에 대한 텍스트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동사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서문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서문 중 하나인데, 1세기에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루크는 자신이 파라도세이스를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그는 권위 있는 정보 전달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노선을 따라가는 또 다른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이 용어는 아마도 초기 기독교 교육의 일부였던 확립된 구전 가르침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했듯이,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전통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3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 전통에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외로운 레인저가 아닙니다.

그는 때때로 소외되었고, 그의 헌신만으로도 어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의 진정한 전통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서신에서 교회에 그 전통의 의미를 풀어내면서 그것을 더욱 충만하게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창조된 성의 구별을 정경적이고 협상 불가능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의 파라도세이스의 규범적 성격입니다. 저는 규범적, 서술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우리가 규범적 패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항상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규정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규정합니다. 때때로, 성경은 설명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처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도행전 20:20 환상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집집마다 다니며, 그것이 교회를 위한 집집 방문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도행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날 때마다 성찬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1세기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예배를 그런 식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리머스 브레드런과 같은 일부 그룹이 그렇게 했고, 저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저는 기독교 초기에 플리머스 브레드런 집회에서 활동했고, 지금 제가 다니는 장로교회에서도 매주 이를 지킵니다. 하지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 중 일부는 너무 형식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교단에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특정 전통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설명하고 있고, 바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말하면서 처방하고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창조된 구별과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성경 서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와 관련하여,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규범적 처방 자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 도약, 또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대로 비논리적 도약을 작은 정보 한 조각에서 취해 체계로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조심하세요.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처방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설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표지의 본질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은 가려야 했지만, 어떻게 가리나요?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표지의 본질은 창조된 구별이고,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여성의 영광, 남자의 영광, 그리고 표지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것은 법의학적 교육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이며, 그것은 조금 더 설명적입니다. 이 용어, 이 전통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전통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며, 전통은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전통의 역사가 무엇이든 말입니다.

저는 이미 당신에게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요. 바울은 창조된 성의 구별을 정식적이고 협상 불가능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덮개의 문제를 관습적인 것으로 본다. 이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16절에서 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며, 우리는 다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맥락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설명적일 수 있다.

그는 더 큰 문제가 남성과 여성 간의 역사적 구분, 즉 파라도 세아(parado seis)와 전통을 시험하거나 도전한 일부 여성들의 부끄러운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더 깊은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관습을 유지하는 데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기꺼이 제시합니다. 따라서 관습은 전통에 묶여 있으며, 관습이 전통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면, 그것은 준전통이 됩니다.

영원히 고정되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그 맥락 내에서 고정되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나중에, 특히 10절에서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를 따라가면서, 즉 2절은 여성의 지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전반적인 구절이 될 것입니다.

11장은 여러 면에서 여성을 높인다. 5절은 말한다. 그러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는 이제 그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자,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 이것은 공공장소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거의 즉흥적으로, 마치 당신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녀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여자는 머리를 욕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덮개와 욕됨의 문제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그녀를 면도한 것과 같지만, 그녀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자격을 부여합니다. 유대인 역사의 많은 상황에서 그들은 이전에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11절, 그러니 너무 큰 놈이 되지 마세요, 신사 여러분. 12절,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7~12절의 마지막에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전체의 중심 초점입니다.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공적 예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2절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를 낮추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 글은 적어도 여성이 바울이 제시한 창조된 구별에 따라 공적 예배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를 증진합니다. 창조된 구별이라고 말할 때, 평등주의자들은 때때로 그것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어하는데, 많은 경우 창조된 구별은 남성 아래에 있는 여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함께가 아니라, 그들의 전체적인 관점은 평등, 평등주의적 평등인 반면, 위계주의자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유행에 편승하기 때문에 창조된 구별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구별은 텍스트에서 나오는 것보다 텍스트에 더 많이 도입됩니다. 텍스트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논란 중 일부가 도입한 것만큼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텔벗은 바울이 크리스천 여성들을 침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기 표현에서 자신들의 필수적인 부분을 부인하지 않았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즉, 신과 올바르게 관계된 남성, 신과 올바르게 관계된 여성, 남성이 아니라 신과 올바르게 관계된 여성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창세기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신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자가 남자로 덮여 있는 이유와 많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 각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 관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원래 요점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성의 영광을 보호하지 않고, 여성의 영광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합니다. 그 안에서 구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존재론적 구별이 아니라 바울이 창세기와 성경의 메타서사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기능적 구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에 대한 가혹한 폄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것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60년이나 70년 동안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800년대에는 여성들이 선교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남침례교에도 유명한 선교사들을 위해 헌금을 받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유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더 많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3~16장, 137 페이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머리가 상징되는 것입니다. 11:2 이후에, 우리에게 이 *paradoseis*, 전통의 문제를 가져다주면서, 우리는 특정 용어와 그 용어들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경쟁하는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에 걸쳐 이 자료에 파묻혀 있었고, 가끔은 떠나기도 하고,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고, 제가 넣은 모든 것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학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모든 창작물에 너무 일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일찍 특별한 의제 해석적 내용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본문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1세기 바울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고 나중에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한다면, 성별 논쟁에서보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의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은 많은 논쟁을 거쳤고 지금도 논쟁 중이며, 복음주의적 성별 논쟁에 대한 최종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방어하는 구성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구성을 방어하기 위해 변형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향에서 평등주의적이든 계층적이든, 당신은 그 견해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제 해석학이고, 모든 사람이 다소 그것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실천을 인식하고 우리가 텍스트로 돌아갈 때 우리 자신의 최종 결론에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경전과 그 기본적인 직접적인 가르침에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Fee가 요약했듯이 Fee는 평등주의자이지만, 이 요약을 들어보세요.

훌륭한 학자로서 그는 그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이러한 더 큰 맥락적 질문과 함께, 이 구절은 악명 높은 해석적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전체 논증의 논리이고, 이는 다시 두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용어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러한 용어가 많이 있고, 일반적인 문화와 특히 교회에서 널리 퍼진 관습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성, 초기 기독교 예배에 대한 복잡한 전체 문제를 포함합니다. 바울의 답변은 그들과 자신 사이에

몇 가지 핵심 지점에서 이해가 있다고 가정하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서신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일방적인 전화 대화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각주를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중요한 맥락적 질문, 즉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가는 특히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그 결론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에 맞는 용어를 원합니다. 그것은 순환이고, 원입니다. 텍스트, 용어, 구절, 내가 의미하는 바, 다른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 다시 텍스트로 돌아갑니다. 이 정보를 보고 전체 성경적 구성에 대해 가능한 한 정직하고 개방적이려고 노력하는 큰 원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몇 명 읽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텍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읽었는데,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중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수준에서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11 :3절에서 머리됨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언급되고, 그런 다음 그것을 풀어낼 것입니다.

우선, 그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11-3의 평범한 독해는 머리가 규범적인지 아니면 설명적인 항목인지를 나타냅니까? 11:3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당신이 모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글썄요, 거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

그것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2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처방적 진술이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명적 진술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은유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성경 이야기에서 신과 인간,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은유입니다. 머리, 케 펠레 , 11:3의 머리는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위인가, 위계인가? 그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텍스트를 사실로 왜곡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절을 해야 한다는 증거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평등주의자인 갈랜드가 말했듯이, 텍스트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계층적일수록, 이 텍스트가 그런 방식이기를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역에서 남성의 지배력을 주기 때문이며, 그것은 보이고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권위적입니까, 아니면 계층적입니까? 아니면 출처입니까, 아니면 기원입니까? 여성은 남성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정말 까다로워집니다. 출처와 기원은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토론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우리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질문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나왔는가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까?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에서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 논쟁의 오버헤드는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우리가 종속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출처 관점을 취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에게 근원이 되거나 종속될까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에 대한 문헌은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널 기사와 책이 모두 쓰여졌는데, 둘 다 성별 문제와 삼위일체에 대한 종속 문제를 다루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여성에 대한 논쟁에 들어가고, 위계주의자들은 특히 그것이 그들의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들었고, 평등주의자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그리스도를 종속시키고,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잘못된, 이단적인 종속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글썬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엄청난 논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아마도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와 관련된 종속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 와서 성별과 관련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불법성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여야 합니다. 머리로 번역된 용어는 11:3에서 10까지 10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복이 우리의 주의를 끌어야 할 무언가라고 이전에 언급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1~4장의 구절에서 2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은 지혜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모든 곳에서 사용됩니다. 사람의 지혜, 신의 지혜, 좋은 지혜, 나쁜 지혜. 글썬요, 이 몇 구절에서 머리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번역되었고, kephale , 번역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반복은 항상 우리의 해석 감각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제, 저는 왼쪽 열에 텍스트를 넣은 다음 가운데에 텍스트를 넣은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NRSV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배열을 원했지만, 한 페이지에 열이 많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번역에서 head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점은 사람들이 머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 차트의 세 번째 부분은, 스스로에게 머리가 문자적으로 머리로 사용되는지

, 아니면 은유적으로 사용되는지, 즉, 내 머리가 공적 예배에서 신을 나타낸다는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좋아요, 문자 그대로를 얻었고 은유를 얻었네요. 11:3에서, 저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머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그는 제 어깨 위에 앉아 있지 않아요. 그건 은유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에요.

그는 그녀의 어깨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유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신은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은유입니다. 은유는 스스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악명 높습니다.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삼위일체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은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당신은 다양한 의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었고, 우리는 11:4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의 머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와, 그게 문자적인 말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은유일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11:5에는 세 가지 참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베일을 두르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여자는, 글쎄요, 문자 그대로, 이전 구절처럼 남자에게 머리를 욕되게 합니다.

아마 은유일 테지만,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물음표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친절하게 하기 위해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글쎄요, 당신은 은유를 깎지 않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좋아요, 더 나아가서, 7절,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머리는 가려져야 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반영입니다. 11:10, 이런 이유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권위의 상징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문자 그대로이고, 이 특정 지점에서는 은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어가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이것이 의미에 대해 논쟁이 되는 큰 용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용어에 대해 논쟁하고, 단어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 다음 다른 모든 것에 그것을 강요합니다. 죄송합니다.

kephale 의 의미 와 단어 학습 접근법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전문가 협회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kephale이 통치자나 권위를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했고, 그들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head나 조직의 수장, 기업의 수장, 강의 수장을 의미하는 head가 사용된 수천 개의 텍스트를 표면화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죠? 그게 그런 식으로 쓰이긴 하지만, 출처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몇몇 개인이 있습니다. 머리가 통치자나 권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계층적 진영에 속합니다.

그들은 보통 자신을 보완주의자라고 부르고, 저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계층주의자 라고 부를 것입니다. 제가 강력한 평등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텍스트에 따라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도 보완주의 영역에 더 많이 떠다닐 것이지만, 저는 그 보완적 영역의 연속체로 이동할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나는 체계의 노예가 아니며, 의도적으로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선, 통치자나 권위 하에서, 이 관점은 철저한 단어 연구에 발표되었습니다. 웨인 그루뎀은 머리의 출처로서의 사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적 중간자에게 사전을 가져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루뎀은 이런 연구를 하고 이를 출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반대하는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트리니티 저널에는 이에 대한 찬반을 잇따라 다룬 여러 연구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제 참고문헌에 인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싶다면,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젠더 논쟁에 들어가기 위해 2,000~5,000페이지 분량의 독서를 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지만, 젠더 논쟁에 들어가면 같은 텍스트를 사용하고 다른 이유로 다른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미칠 것입니다.

케펠레를 출처로 사용하는 표면적 용법에 도전했고, 다음 섹션에서는 그 도전이 일부에 의해 충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 또는 권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남성 리더십은 가정과 교회에서 표준입니다.

계층주의의 연속이며, 보완주의의 어떤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스템에서 훨씬 더 많이 풀려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시스템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이 용어는 출처 또는 기원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번역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많은 강력한 타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나 권위자에게는 몇몇 강력한 타자들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보수적 복음주의의 열차에 있습니다. 그 열차 밖에도 몇몇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Fitzmeyer가 로마 가톨릭 신자이고 복음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방금 몇 가지 샘플을 드렸어요. 좋아요, 출처 또는 원점.

첫째, 이 관점은 단어 연구를 하는 데 느리지만, 그들은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전에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는 도전으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운동 사이에는 음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신자인 찰리 마틴이라는 흥미로운 사람이 일어나 그루뎀의 방대한 단어 연구에 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구절 2,500개를 찾고, 그렇지 않은 구절을 누군가 찾았다면, 그것은 흥미로운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겠습니까? 이 관점은 단어 연구를 하는 데 느리지만, 그것은 평등주의적 관점이고, 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Troy Martin은 Grudem의 도전을 받아들여, 실제로 그리스 문학에서 head가 출처를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몇몇 사람들이 연구를 수행하여 출처와 기원이 그리스 문학에서 kephale 의 개념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치자 권위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지만, 그것은 문학의 본질일 뿐입니다. 하지만 강의 근원, 강의 상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문화에서 은유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강의 상류는 강의 근원입니다. 강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강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정 용어에 대한 이 측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은유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께 장소, 몇몇 장소, 마틴이 표면화한 두세 군데, 그리고 다른 곳에서 표면화한 곳을 알려드렸는데, 그것은 출처 또는 기원이 합법적인 번역임을 보여줍니다.

심장은 근원, 첫 번째 지점입니다. 아르케는 피의 근원 또는 시작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머리는 근원입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케팔레는 가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머리이지만, 여전히 근원입니다.

각 번역에서 출처의 개념을 다시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머리는 가래의 근원입니다. 비장은 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목록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왜 얼굴은 가장 땀을 많이 흘리나요? 이것은 인용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제 첫 인용문을 잊었습니다. 제 시작 인용문입니다. 왜 얼굴에서 가장 많은 땀이 날까요? 땀이 희박하고 축축한 부위를 통해 가장 쉽게 통과하기 때문일까요? 이 초기 작가들 중 일부는 사물을 설명하는 몇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겨드랑이에서 땀을 흘리죠, 그렇죠? 머리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상당한 수분 때문에 수분의 원천인 듯합니다.

머리는 수분의 근원인 듯합니다. 케팔레는 다시 한번 근원 또는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은 더 나아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지성, 이성, 사고, 의사 결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꽤 분명하게 말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놓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뇌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에서 삶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들은 오르간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성이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스피릿이나, 연민의 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사고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마음을 감정에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성경을 망가뜨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성경에서 대부분 마음과 이성적 과정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대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Martin의 기사는 그것에 대한 좋은 작은 진입점을 제공하고 여기 인용문도 제공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Grudem이 하는 것처럼 kephale을 권위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의 인류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섹션 전체를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Troy Martin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Troy Martin은 또한 고대 세계의 여러 권으로 된 의학 그리스어 의학 사전을 출판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학 사전에 심장에 대한 좋은 항목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출판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나간 것 같지만, 저는 은퇴한 이후로 흐름에서 벗어났고, 그것은 제 가격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처에 달려가서 확인할 도서관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그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알려드렸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kephale은 출처와 기원을 의미할 수 있지만, RK와 함께 통치자와 권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 점에서 거의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숫자 때문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맥락 때문에 편승합니다.

그게 모든 단어의 최종 결정자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세어도 되지만, 세는 것이 최종적인 권위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아마도 2007년 SBL 논문에 있는 마틴의 기사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평등주의에 대한 결과적인 견해는 여성이 가정과 교회의 대부분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계층주의적으로 여성은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에게 종속됩니다.

평등주의자들은 여성은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과 동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층주의자들이 남성과 여성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일부 급진주의자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등주의적 측면에서, 그것은 그들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전적으로, DNA 적으로, 등등, 그리고 심지어 일부 기능적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창조된 구별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평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종 갈라디아서에서 노예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 본문을 증거 본문으로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다른 본문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로 증거를 모으는 것은 재미있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의미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단어 연구 자체로는 의미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영성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영적인이라는 형용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용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고, 그 용어는 예수님에 대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책을 쓴다면, 저는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는 시편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편을 소외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맥락적 의미 문제를 배제하고 단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의미는 맥락에 있습니다. 단어는 맥락에서 의미를 얻고, 이는 해석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139페이지로 넘어가면, 첫 번째 주요 요점이 있습니다. 머리의 은유적 용법은 해석의 중요한 항목을 구성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은유보다 문자적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은유적 용법이 분명히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은유적 번역에서 머리의 의미는 매우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방금 그 중 일부를 보았습니다. 이 논란은 주로 성별 논쟁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계층주의와 일부 보완주의자들은 권위의 번역을 장려하는 반면, 평등주의자들은 출처를 주장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현대의 의제, 즉 젠더 논쟁이 의제 해석학의 목적을 위해 텍스트의 단순한 독해를 무시했는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단순하게 읽고, 그것이 성경의 메타서사적 맥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가 항상 우리의 첫 번째 과제여야 합니다.

계층주의자 . 여기서는 약간 반복적이지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계층주의자

이제, 저는 보완주의 대신 이 용어를 사용하고, 139페이지 하단에 주석이라고 적힌 작은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주석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젠더 논쟁에서 보완주의라는 용어를 누가 소유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계층 주의자들이 그 용어를 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을 겪어보고, 프로 무대와 출판 무대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물러나서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꽤 사악해졌습니다. 그러나 계층 주의자들은 그 용어를 자신들을 위해 납치하여 그들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장르 논쟁의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선호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계층주의자 들이 보완주의라는 단어를 납치한 것에 대한 변화를 외쳤다 . 그들은 그것을 차지했다. 왜? 그것은 더 부드러운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토론에 가져온 모든 것을 가지고 계층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보완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냥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의 정의를 내렸고, 그것은 그 용어가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글쎄요, 그게 사실이에요. 당신은 그것의 적용을 알아낼 수 있어요. 요점으로 돌아가요.

저는 보완주의자라는 용어 대신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중도적 용어이고 항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완주의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보완주의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논의의 시작일 뿐입니다

계층주의자 라고 말하면 , 그들이 누구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평등주의자라고 말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완주의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걸 알아내려면 책 두 권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젠더 논쟁에서 벌어진 방식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계층주의자들은 이 텍스트가 창세기 문화 명령에서 확립된 젠더 구조 관계에 의존한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우선순위와 순서는 젠더 구분의 목적을 위한 창조적 구분의 권위를 반영합니다.

이제, 이 중 많은 부분이 우리를 창세기로 되돌릴 것입니다. 젠더 논쟁의 창조적 구성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지만, 여기서 약간의 통찰력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은 위계적 관점에서 창조된 복종, 즉 타락 이전의 복종인가, 아니면 타락 이후의 복종인가? 이걸 흥미로운 작은 대화입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이 긴장 문제는 창조된 것인가요, 아니면 타락의 결과인가요? 그리고 위계와 평등주의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싸우는 두 입장이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창조에서 시작되나요, 아니면 타락 이후인가요? 타락 이후는 모든 것을 망쳤고, 이것도 망쳤을 수 있지만, 이 분야의 문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평등주의자와 일부 보완주의자.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은 계층적이고 평등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주의자는 그 중간 전체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이쪽으로 기울고, 일부는 저쪽으로 기울고, 그리고 당신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얻습니다.

저는 아마도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연속체의 양쪽 끝에 약간의 진실을 보고, 가능한 한 텍스트를 먼저 다루고 다른 문제는 나중에 다루고 싶습니다. 좋아요, 계속합니다.

평등주의자들은 바울의 관심사를 계층적, 즉 누가 누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관계적, 즉 예측되는 고유한 관계로 봅니다. 노트에 그런 식으로 적혀 있다면 예측된 것이 아니라 예측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근원을 갖는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Fee는 그의 저서 505페이지에서 이 종속주의를 다룹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판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의 논평의 첫 번째 판 이후로 더 많은 것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그것을 확장했을 것입니다. 젠더 논쟁 문헌에서 종속 논쟁에 대한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가보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두 진영 중 어느 쪽이든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에서의 종속 신학, 그것이 성별 논쟁에서 은유로 사용되는 방식,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타당한 비유인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 비유를 강제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저 남자, 여자, 여자, 남자처럼 표면적인 비유에 불과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울타리의 위계적 쪽에 있는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은 고린도전서 11장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 때문에 성경적 평등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자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문학에 들어가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빛보다 열기가 더 많았지만, 쓰여진 것이 많고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울타리 양쪽에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당신은 폭넓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제 해석학이 진행 중이고, 요점을 가르치기 위해 같은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극도로 조심해야 하지만, 당신은 폭넓게 읽음으로써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페이지 하단 2b에서, 머리 직분의 가르침은 4절에서 15절까지 논의됩니다. 머리의 영적 상징주의는 남성과 여성과 관련된 은유적 상징주의입니다. 이것은 덮이지 않은 것과 덮힌 것의 문제입니다.

1d, 4절에서 6절까지의 고린도 회중에서 상징주의의 적용. 4절, 4절을 살펴보자.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는 자기 머리를 욱되게 한다. 그러니 여기서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돌아와서 5절에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회중에서 머리를 가리고 있다면 남자들이 어떻게 머리를 욱되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항상 나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구약성서를 읽어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착용해야 하는 꽤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죠? 그는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교 남자들은 야르몰케를 썼습니다

그것은 야훼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두개골 모자입니다. 글쎄요, 인간이 왜 그런 전통 중 일부로 인해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가 정확히 그 나무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Richard Oster의 기사를 여기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Richard Oster는 전문 고고학자이며, 신약 성경 본문을 가진 고고학의 장인이며, 또한 신약 성경 본문을 가진 고전 자료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훌륭한 기사를 썼습니다. 당신은 다시 부상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신학교에 다녔는데 일반 웹에서 찾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학교 사서에게 문의하세요. 캠퍼스에 있는 이런 학교 대부분은 인터넷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주요 저널을 찾지 않는 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자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첫 페이지를 주고 나머지는 얻으려면 뭔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도서관에 가서 사서와 이야기하면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도서관에 가서 코드를 입력하고 저널의 방대한, 방대한 측면을 검색하여 이러한 기사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테라바이트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도서관 사이트에서 컴퓨터로 복사한 저널 기사가 기가바이트가 넘습니다. 글썬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이것에 대해 야심차게 생각하고 그 물건을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 궁금했지만, Richard Oster의 기사는 이 문제를 다루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Corinth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남자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특히 엘리트와 지도자, 카이사르들이요. 코린트에서 로마 남자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토가를 머리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 사진을 플래시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세련되었다면,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구글에서 Roman Caesars를 검색해서 보면, 꽤 많이 보일 거야. 예를 들어, Augustus는 머리에 토가를 쓰고 있어.

머리에 토가를 두르는 것은 로마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머리에 토가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썼지만 남성은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그것을 썼지만, 종교적 맥락에 있을 때는 신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것을 입었습니다. 로마 남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특히 엘리트와 카이사르들이 그랬습니다. 이 헌신적인 제스처 인용문은 카피 테로 알려졌습니다. 볼라토 .

제가 라틴어를 제대로 썼으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영구 로마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사용했는데, 로마 종교에서 신으로 여겨지기 전의

카이사르나 그에 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머리 위로 꺼냈습니다.

드루이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영국 역사에서 기억하시죠.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언급된 경건한 복장의 모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스터는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예배 장소에서 머리를 가리는 로마인 남성의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남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종교적 융합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한 측면입니다. 다른 측면은 바울이 이야기해 온 창조된 구별에서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예배, 상징주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진행 중입니다. 로마의 종교적 영향 가능성과 예배에서 남성과 관련된 다른 은유와 다른 메타 서사의 현실성입니다.

불행히도, 이 장에서는 남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데, 모두가 여성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길, 귀하의 참고문헌에 있는 기사는 이 문제와 남성 문제, 베일링에 대한 질문을 확장합니다. 11:4는 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유추적으로, 우리는 11:5에서 더 쉬운 길을 찾을 수 있고, 두 가지 이유로 남성과 대조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로마 종교와 종교적으로 융합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머리이며, 따라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개방적이고 외적인 이미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로마 문화권의 여성은 결혼과 겸손 때문에 베일을 썼지만, 교회에서도 베일을 썼는데, 그들의 머리가 인간의 상징이고, 인간의 영광이며, 인간의 영광이 예배에서 두드러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일. 좋아요, 그 이미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세요. 이제 11:5까지 왔고, 강의에서 약 1시간 동안입니다.

그럼, 여기서 140페이지에서 멈추고, 1고린도서 11장 5절에서 다음 강의를 140페이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노트를 읽고, 가능한 한 많은 연구를 하고, 스스로를 교육하세요. 그 분야에 들어가면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강의 25, 고린도전서 11:2-34,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11:2-16, 하나님 앞에서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 1부입니다.